



채널A '외부자들'이 정치예능프로그램 대열에 뒤늦게 합류했지만 경쟁자들을 맹추격하고 있다. 프로그램 주역인 패널과 진행자 안형환·진중권·남희석·전여옥·정봉주. (왼쪽부터) 사진제공 | 채널A

대박난 채널A '외부자들', 4인4색 캐릭터의 힘

방송 4회만에 시청률 6.19% 돌파

봉도사 정봉주, 개그맨 웃기는 정치인 진중권,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독설 전여옥, 정치인 민낯 까발리는 저격수 안형환, 빅데이터 토대 다양한 이야기

이야기하는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찾은 이들이 안형환·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진중권 중앙대 교수다.

●'봉도사' 정봉주...유머·웃음 담당 'BBK 저격수'다운 '히든카드'였다. 그는 지난달 24일 방송에서 "반기문 진영의 후보가 황교안으로 바뀐다"며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대선 중도 하차를 예측해 화제를 모았다. 이미 팟캐스트 등을 통해 풍부한 입담을 과시해온 그가 말을 시작하면 여간해선 끊기 어렵다. 풍자와 해학을 버무려가며 다른 패널과 시청자를 쥐락펴락한다. "정치는 무조건 재미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신부터 먼저 망가진 뒤 상대를 무장해제시킨다. 진행자 남희석이 "개그맨을 웃기는 정치인"이라고 할 정도다.

●진중권...모두 까기 인형 '진보 논객' 진중권 교수를 채널A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리라고 아무도 쉽게 생각

하지 못했다. 그만큼 신선하다는 반응이다. 김 PD는 진 교수와 정 전 의원, 둘 중 한 명이라도 출연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을 포기할 생각으로 진 교수 섭외에 목을 뒀다. 단순한 보수와 진보 진영의 맞대결이 아니라 정치권의 '내부자들'이 보지 못하는 이야기를 '외부자들'의 시선으로 본다는 프로그램 기획의도에 가장 걸맞은 패널이다. 진 교수는 실제 자신의 원칙에 따라 여·야,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모두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시청자 호불호가 엇갈리지만 '문제적 인물'이라면 그에 대한 비판과 독설을 서슴지 않는다.

●전여옥...'독설의 여왕' 현역 의원 시절 상대 정당에 대한 독설로 유명했던 전여옥 전 의원은 정 전 의원과 진 교수의 '대항마'이다. 4년 전 "다시는 정치를 안 한다고 떠나" 평범한 가정주부 겸 작가로 생활하고 있는 그는 프로그램 론칭 시점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박근혜 저격수'로서 역할이

더욱 부각됐다. 김 PD는 최근 불거진 일련의 사태로 "이전에 '전 전 의원이 주장했던 일들이 사실이구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면서 "전여옥 다시 보기"와 같은 관심이 번지고 있다"고 했다. "정치인들의 민낯을 사실대로 까발릴 것"이라는 '독설의 여왕'이 안정적으로 귀환한 셈이다.

●안형환...'빅데이터' 안형환 전 의원은 다른 패널들보다 상대적으로 젊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신 KBS 기자 출신답게 '팩트'를 우선시하는 그는 '마당발'과 '빅데이터'로 불릴 정도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대변인을 거친 그는 다만 직설보다는 돌려 말하기를 즐긴다. 예능 시사프로가 그렇듯 특정 주제나 인물에 대해 패널이 돌아가며 비판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출연을 고사했지만, 프로그램에 부드러운 미덕을 채워주는 역할을 맡는다.

이정연 기자 anjoy@donga.com



채널A '외부자들'의 김군래(왼쪽) PD와 유혜선 작가 등 제작진은 패널 발언의 사실 확인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김민정 기자 maineboy@donga.com

김군래 PD "정봉주·진중권 섭외 비결? 선의의 거짓말 덕분"

"사실 검증 안된 발언 무조건 편집" '외부자들'의 패널들은 하나의 주제를 몇 시간씩 토론할 수 있는 이들이다. 하지만 자칫 민감한 소재를 다루는 프로그램 성격상 그 발언을 날 것 그대로 방송할 수 없다. 제작진이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화를 꾀하는 것만큼 중시하는 것도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다. 김군래 PD와 함께 프로그램을 이끄는 SBS 'X맨 일요일이 좋다' 출신 유혜선 작가는 말한다. "숫자와 법률용어, 일화 등 발언을 모두 검증한다. 패널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으면 내보내지 않는다. 무엇보다

입담 세기로 유명한 분들이라 절대 생방송으로는 할 수 없다. 하하!" 패널들은 각기 스타일도 다르다. 제작진은 지난달 25일 녹화 전 박근혜 대통령이 인터넷방송인 정구재TV와 한 인터넷 방송을 제시하고 생각을 적어 달라 했다. 진중권 교수는 책상에 정자세로 앉아 내용을 하나 하나 들여다봤다. 전여옥·안형환 전 의원은 홀로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았다. 정봉주 전 의원은 작가와 PD들을 모아놓고 소리 내어 읽고 토론했다. 김 PD는 "네 명의 캐릭터가 전혀 달라 재미있다"며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현실'과 '이론'으로 나눈 것이다. 이야기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었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최순실 사태로 '외부자들'이 급조된 줄 안다. 첫 방송 시점이 12월이었던 것도 그런 오해를 부를 만했다. 하지만 제작진은 이미 지난해 7월 프로그램 기획과 출연자 섭외에 나섰다. 김 PD는 가장 먼저 정 전 의원을 섭외했다. "실마 채널A에 출연하겠어?"라는 생각이었다. 그에 명함을 건네며 프로그램 의도를 설명했지만 단박에 거절당했다. 이후 4개월의 설득 과정을 거치며 진 교수도 동시 섭외했다. 양측에 "정봉주가 나온다" "진중권이 나온다"는 선의의 거짓말(?)로 출연을 성사시켰다.

이정연 기자



백슬미의 레알 대사발

드라마는 늘 명대사를 남긴다. 하지만 모두 챙겨 볼 여유가 없다. 방송사의 모든 드라마를 꿰고 있어야 하는 직업. 한 주 동안 시청자를 웃고, 울린 그리고 또 가슴을 적신 '한 줄', 그래서 "제가 한 번 뽑아 봤습니다". 일상에서도 써보기를 권하며.

●"아무리 하찮은 종놈이라도 구석에 몰면 안 되는 것."(MBC '역적:백성을 훔친 도적' 2월6일 방송 중에서)



조선시대는 상반의 구분이 지금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던 계급사회였다. 하지만 그것도 엄연히 인간들의 세상. 돈과 권력, 계급을 무기로 노비를 착취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양반들의 비열어진 세상을 얼마나 많은 노비와 '상놈'들이 뒤집어엎으려 했나.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평생 종노릇을 하다보면 주인 똥 싸는 소리만 들어도 기분을 알 수 있다"는 '올'에게 '갑'의 '막장' 행동은 언젠가 자신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건 시대불문이다. 사람은 다 똑같다.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디에도 없다.

●"웃은 자신에게 이렇게 살겠다는 다짐."(KBS 2TV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2월11일 방송 중에서)



좋은 신발은 좋은 곳으로 데려다준다는 말이 있지 않나. 웃도 그렇다. 명품을 입을 것을 자기과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름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다. 예쁘고 멋진 옷처럼 내 자신이 주위에 그렇게 비치길 바라는 마음은 인지상정이다. 그렇게 웃에 삶을 투영한다고 해서 부담스러워 할 필요는 없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웃은 이렇게 되고 싶다는 소망"인 것처럼 수수하지만 단정함 나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어렵다.

CHANNEL 오늘의 채널A 닥터 지바고 13일 오후 8시20분

생활 불규칙한 개그맨들 혈관 건강은?



언제나 윤택함으로 웃음을 주는 개그맨들. 하지만 무대 뒤에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일정에 쫓긴다. 공연 전 급하게 배달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부족한 잠을 채우기 위해 불편한 쪽잠을 자기 일수다. 이처럼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있는 개그맨들의 혈관건강은 어떨까. 이들의 하루 일상을 관찰카메라를 통해 지켜보기 했다. 또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혈관 노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 최악의 결과를 통보받은 개그맨은 누구일까. 올해 나이 70살, 하지만 젊은 외모를 유지하고 있는 텔런트 김민정이 출연해 혈관 건강을 자랑한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편집 | 김대현 기자 bong82@donga.com

스포츠동아는 성인광고를 실지 않습니다

TV 프로그램 13일 (월)

Table with TV program schedules for Channel A, KBS 1, KBS 2, MBC, SBS, and IPTV. Columns include channel, time, and program name. Includes a large advertisement for '7500원' food promotion.